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시민 조사자를 위한 **현장 매뉴얼**



조사 효율을 높이는 핵심 기법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시민 조사자를 위한 현장 매뉴얼

초판 인쇄 2024년 10월 15일

초판 발행 2024년 10월 30일

글·기획 광주 동물권 단체 성난비건

감수 김윤전 전문위원(국립생태원 동물관리연구실 동물복지부)

일러스트 제이

편집 유휘경

디자인 파종모종

제작 종로인쇄

종이 표자·내지 스노우 200g/m²

폰트 SD 산돌고딕

발행 광주 동물권 단체 성난비건

전자우편 angryvegan.gwangjeon@gmail.com

인스타그램 [@angryvegan.gwangjeon](https://www.instagram.com/angryvegan.gwangjeon)

© 광주 동물권 단체 성난비건 2024

ISBN 979-11-987898-0-8 103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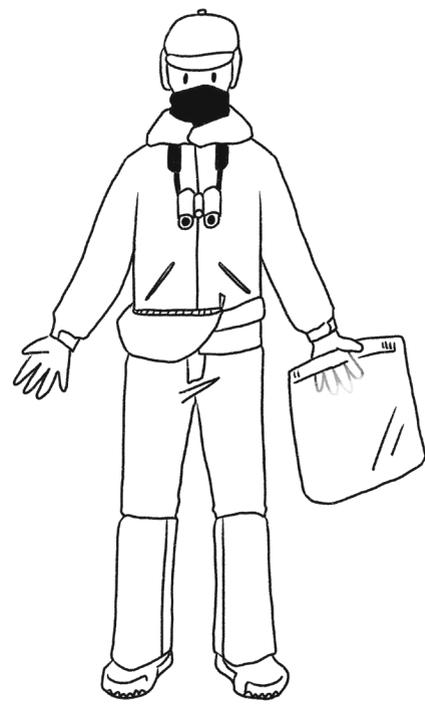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한국에서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전재, AI 학습 이용을 금지하며,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와 출판사 양측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책은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하였습니다.

조사 전 체크리스트



여름 복장



겨울 복장



기본 준비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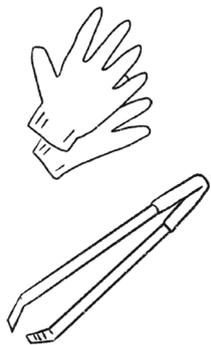
- 필수
- 선택

복장

- 모자
- 아웃도어 의류
- 등산화 또는 운동화
- 장목 양말
- 조사용 가방
- 안전 조끼
- 선글라스
- 멀티스카프
- 스파츠

물품

- 스마트폰
- 사체 수거용 봉투
- 중복 방지 표시용 스티커
- 새를구하자'
- 네임펜과 볼펜
- 마스크
- 장갑 또는 집게
- 구조용 종이봉투
- 쌍안경
- 홍보용 안내 리플릿
- 여분의 새를구하자'
- 모기·진드기 기피제
- 자외선 차단제
- 손 소독제
- 휴대용 티슈
- 휴대용 응급키드
- 안전 삼각대
- 마실 물
- 간식



조사자 기본 수칙

1. 건강 상태 확인

조사자는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조사를 지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사 전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휴식을 취합니다.

2. 일기예보 및 일출·일몰 시각 확인

조사 전 담당 조사 지역의 일기예보를 확인합니다. 비, 태풍, 눈 등 기상 악화로 조사 진행이 수월하지 않거나 불가능할 경우 일정을 조정합니다. 하루에 여러 장소를 조사할 경우 일출·일몰 시각을 확인합니다. 해가 지면 사체나 그 흔적을 찾기 어려우므로 일몰 전에 조사를 마쳐야 합니다.

3. 동선 및 진입로 확인

조사 전 지도 앱을 켜서 조사 대상지의 위치와 인공구조물 규모, 진출입로를 확인합니다. 고가도로 방음벽은 주소지와 실제 위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합니다. 위성 지도로 보면 인공구조물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로드뷰 기능을 활용하면 진출입로와 인공구조물 주변 식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여러 장소를 조사할 계획이라면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이동 동선과 주차 위치를 미리 확인합니다.

4. 복장과 물품 점검

조사 시기에 맞게 조사 복장과 물품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름에는 흡습·속건 기능이 뛰어난 복장을 갖추십시오. 기장이 긴 상·하의를 입어 풀, 나뭇가지, 풀벌레 등에 의한 알레르기질환을 예방합니다. 반소매 상의에는 팔토시를 착용합니다. 더불어 온열질환을 대비해 챙이 넓은 모자와 얇은 마스크, 냉감 스카프, 선글라스 등을 챙깁니다. 겨울에는 방한용품을 챙깁니다. 보온력이 뛰어난 의복과 모자, 붙이는 핫팩 등을 챙겨 동상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조사자는 새가 가지고 있는 기생충(이, 벼룩, 진드기)이나 질병(조류인플루엔자(AI)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장갑을 착용하거나 집계를 사용해 사체를 수거합니다. 사체에 직접 접촉했을 경우 반드시 손 소독제를 이용하거나 비누물로 손을 씻습니다.

5. 차량 상태 확인 및 주정차 주의

도로 방음벽을 조사할 경우 안전 조끼 및 안전 삼각대 등 도로 안전용품을 추가로 갖춰 안전하게 조사합니다. 조사 전에는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이동 중에는 교통법규를 준수합니다. 현장에 도착하면 갓길 또는 인근 공터 등에 주차한 뒤 후방 100m 지점에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합니다. 또 운전자들이 먼 거리에 서도 조사자를 인지할 수 있도록 빛 반사 안전조끼를 입습니다.

6. 위험지역 및 위험 요소 회피

급경사 등 조사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조사할 수 없는 장소는 무리하여 진입하지 않습니다. 벌, 뱀, 멧돼지 등 야생동물과 만났을 경우 가까이 다가가거나 자극하지 않고 안전하게 회피합니다.

7. 구급약품 준비

조사 중 유리 파편, 못, 나뭇가지 등에 찔리거나, 발목을 접질리거나, 넘어져 찰과상을 입는 등 부상에 대비해 반창고, 소독약, 압박 붕대 등이 들어 있는 휴대용 구급함을 가지고 다닙니다.

지나치기 쉬운 장소

사체 및 흔적 관찰 방법은 국립생태원에서 발간한 「야생 조류 유리창 충돌 시민 참여 조사 지침서」의 내용을 따릅니다. 아래는 사체 중심 조사 시 놓치기 쉬운 부분만 골라 정리한 것이니 현장 조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거진 풀밭

풀을 베지 않아 식생이 우거져 있으면 사체가 가려져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신발코로 풀을 헤집듯 걸으며 식생에 가려진 사체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봅니다. 조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식생이 우거졌다면 관리 주체가 풀을 벨 때까지 기다리거나, 겨울에 조사를 진행합니다.

관목 나뭇가지

인공구조물 근처에 관목이 식재되어 있으면 밀동 주변은 물론 나뭇가지 사이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새가 나뭇가지에 걸려있거나 관목에 가려지면 놓치기 쉽습니다.

보행로 가로수와 화단

인공구조물 옆에 보행로가 있으면 행인이 가로수 아래나 화단에 사체를 옮겨두기도 합니다. 보행로와 차도 경계에 가로수, 화단, 녹지가 조성되어 있다면 함께 살펴봅니다.

H빔 프레임 및 옹벽

방음벽을 조사할 때는 바닥은 물론 방음판을 고정하고 있는 H빔 프레임 주변을 함께 살펴봅니다. 방음벽에 부딪힌 새가 H빔 프레임 구석에 들어가 있거나, 옹벽 위에 떨어져 있기도 합니다.

외부 시설물 천장 및 배후 공간

방음벽 인근에 재활용분리수거장, 지하 주차장 환기 및 채광 시설물, 조립식 창고 등 옥외 구조물이 있는 경우 해당 구조물 천장이나 배후 공간에 추락한 새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사람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일수록 사체가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구조물 하부 공간

인공구조물 인근에 고양이와 숨기 좋은 공간이 있으면 안을 살펴봐야 합니다. 길에서 생활하는 고양이는 직접 사냥을 하기도 하지만 총돌 후 폐사한 새를 주위 섭취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근에 서식하는 고양이가 사체를 옮겨 두지는 않았는지, 섭취 후 다량의 깃털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조물 인근 추정차량 밀

인공구조물 주변에 추정차량이 세워져 있으면 사체가 가려져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차 밑과 타이어 주변을 살펴피며 차에 가려졌거나 타이어에 밟힌 사체가 없는지 살펴봅니다.

수로 내부

인공구조물 아래에 수로가 있다면 수로 내부를 살펴봅니다. 수로 덮개가 있어도 철망 간격이 넓으면 사체가 빠지기 때문에 수로 안을 살살이 살펴봐야 합니다. 덮개는 낙엽 등 이물질 제거 작업을 위해 고정해 두지 않는 곳이 많으므로, 사체를 발견하면 덮개를 들어 올려 수거합니다.

개밧독

개미는 동물 사체의 90%를 먹어 치우는 생태계의 청소부입니다. 사체를 발견하면 다른 포식자나 개미 눈에 띄지 않도록 모래를 덮어 숨깁니다. 개미가 사체 위에 쌓은 모랫독을 개미집으로 착각해 지나치기 쉽습니다. 개밧독이 보이면 신발코로 밀어내 사체나 뼈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목 나뭇가지에 걸린 동박새



1층 발코니 하부 공간에 남은 섭취흔



외부 시설물 천장 위에 있는 사체



주정차량 밑에 있는 사체



배수로 덮개 사이로 빠진 되새



개미독에 가려진 오목눈이

목적별 사진 찍는 법

사체 및 흔적 사진 기록 방법은 국립생태원에서 발간한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시민 참여 조사 지침서」의 내용을 따릅니다. 아래는 목적별로 사진 찍는 방법을 구분하여 안내한 것이니 사진 기록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션 게시 목적

네이처링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조사' 미션에 게시하려면 개체별로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사진을 찍을 때는 사체 옆에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물체를 놓고, 전체 모습이 나오도록 사체 위에 카메라를 수평(일명 항공샷)으로 놓고 찍습니다.

새를 확실하게 동정하기 위해선 여러 면을 찍은 사진이 필요합니다. 등면, 배면, 날개면(위, 아래, 옆)은 반드시 찍고, 그 외에 특징이 두드러지는 부위(정수리, 아래꼬리덮깃, 다리 등)가 있다면 추가로 찍습니다.

충돌흔적은 배경이나 빛에 따라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촬영 각도를 달리하여 충돌흔적이 잘 보이게 사진을 찍습니다. 각도를 바꿔도 충돌흔적이 찍히지 않는다면 프로 모드를 이용하거나 핸드폰 카메라를 쌍안경에 대고 찍습니다.

○ 미션 게시 목적



등면(위)



배면(아래)



날개면(옆)

개체수 파악 목적

한 장소에서 같은 종을 여러 명(命) 발견했다면 개체별로 사진을 찍은 뒤 여러 명을 한곳에 모아 한 번 더 사진을 찍습니다. 게시물을 올릴 때 찍어 놓은 사진을 보며 개체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 전달 목적

촬영 각도를 바꾸면 사진으로 전할 수 있는 이야기와 정보의 폭이 넓어집니다.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문제의 심각성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면 인공구조물의 종류, 규모, 주변 식생, 피해 조류의 종과 개체수 등이 한 컷에 담기도록 사진을 찍습니다. 필요에 따라 사진 방향(가로, 세로)과 촬영 종류(인물사진 모드, 프로 모드, 파노라마, 비디오 등)를 달리하며 찍습니다.

○ 개체수 파악 및 이야기 전달 목적



개체수 파악 목적



이야기 전달 목적

사체 처리 방법

중복 기록을 막기 위해 기록한 사체는 수거합니다. 현장에서 수거한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일반폐기물로 배출하는 게 원칙이나 때에 따라 땅에 묻거나 낙엽으로 덮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일반폐기물로 배출할 수 없을 땐 중복 기록을 막기 위해 인공구조물과 멀리 떨어진 위치에 묻거나 유기합니다.

땅에 묻기

조사 장소에서 수습한 사체 수가 적거나, 애도를 표하고 싶은 경우 양지바른 곳에 묻습니다. 사체를 묻을 때는 고양이나 새 등 야생동물이 파헤치지 않도록 적당한 깊이로 땅을 파고, 깃털이 빠져나오지 않게 꼼꼼히 묻습니다. 땅을 파헤친 흔적을 발견한 다른 조사자가 미기록 개체로 오인해 사체를 파내어 중복으로 기록할 수 있으므로, 인공구조물과 멀리 떨어진 위치에 묻어야 합니다.



낙엽으로 덮기

사체 수거 봉지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풀이 우거졌거나 낙엽이 쌓여 있는 등 눈에 띄지 않는 공간에 유기할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해 사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옮겨지더라도 중복 기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건물 유리창, 방음벽, 유리 난간 등 인공구조물과 멀리 떨어진 위치에 유기합니다. 유기한 사체 위에는 풀이나 낙엽을 덮어 부패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반폐기물로 배출하기

가장 안전한 방법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체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반폐기물로 배출하는 겁니다. 일반 폐기물로 배출할 때 청소 노동자나 주민이 종량제 봉투를 개봉하지 못하도록 밀봉합니다. 봉투 겉면에 조류 폐사체가 들어 있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종량제 봉투는 지정 장소에 배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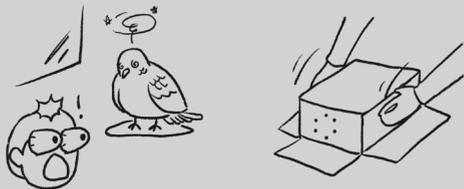
부상 개체 구조 및 신고

다친 새를 발견하면 「전국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목록」을 참고해 해당 지역 구조관리센터에 신고합니다.

다친 새 잡기

구조를 위해선 다친 새를 잡아야 합니다. 수건이나 모자, 담요 등을 이용해 새를 덮으면 안전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눈을 가리면 저항이 줄어들기 때문에 깃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잡은 새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작은 상자에 담아 안전하고 조용한 장소에 둡니다. 상자에 숨구멍을 뚫어주되, 이때 새가 탈출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담당자에게 인계하기

새를 잡았다면 구조관리센터 담당자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구조관리센터에 직접 데려다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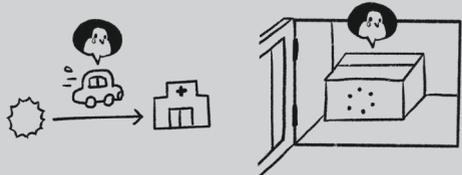
새를 잡을 수 없다면 구조관리센터 담당자가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 남아 새의 상태와 위치를 파악합니다. 담당자가 도착하면 발견 위치와 상태를 전달하여 구조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안전한 장소에 두고 알리기

직접 데려다 줄 수 없다면 새를 담은 상자를 안전한 장소에 두고 구조관리센터 담당자에게 정확한 위치를 알린 뒤 이동합니다. 담당자가 오기 전까지 새가 탈출하거나 천적에게 공격받지 않도록 돌 등을 올려놓아 상자가 열리지 않도록 합니다.

휴일에는 구조관리센터 인계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조관리센터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연락해 봐야 합니다. 광주광역시 구조관리센터는 야외 계류장이 있으니 직접 방문해 넣어두면 됩니다.



임보 후 방생하기

상태가 괜찮아 보이거나 임시 보호 중 충분히 회복한 모습을 보이면 유리 구조물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풀어줍니다.



주의사항

물, 먹이 제공 금지

다친 새에게 물이나 먹이를 제공하거나 억지로 먹이면 안 됩니다. 필요한 경우 구조관리센터의 안내에 따릅니다.

번식기 유조 납치 금지

번식기에는 종종 인공구조물 근처에서 어린 새가 보입니다. 하지만 날개깃이 충분히 자라지 않은 어린 새는 비행 능력이 없어 충돌 피해 개체로 보기 어렵습니다. 조사 도중 홀로 남은 어린 새를 발견했다면 고양이, 개, 사람의 눈에 띄지 않도록 나뭇가지 위에 올려두고 멀리 떨어져 부모 새가 오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사람이 보이면 부모 새가 다가오지 못하니 멀리서 조용히 지켜봅니다. 부모 새가 어린 새에게 다가오거나 먹이를 물어다 주는 모습을 확인하면 장소를 떠나도 좋습니다. 오랜 시간 부모 새가 찾아오지 않는다면 해당 지역 구조관리센터에 신고합니다.



전국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목록(24 기준)

센터명	주소	연락처	운영시간
서울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신림동 산56-1)	02-880-8659	9:00~18:00 (연중무휴)
부산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 1240-2 (하단동 1207-1)	051-209-2091	
인천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대로 372번길 21 (송도동 13-20)	032-858-9704	9:00~18:00 (주말, 공휴일 휴무)
광주	광주 서구 무진대로 576 (유촌동 820-111)	062-613-6651	
대전	대전 유성구 대학로 99 (공동 220번지)	042-821-7930	
울산	울산 남구 남부순환도로 293번길 25-3 (옥동 506-2)	052-256-5322	
강원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효자동 192-1)	033-250-7504	
경기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동천길 132-93 (동천리 56-3)	031-8008-6212	
경기 북부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양연로 1113번길 179-16 (양원리 525-2)	031-8030-4451	
경남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501 (가좌동 900)	055-754-9575	
경북	경북 안동시 도산면 퇴계로 2150-44 (동부리 76)	054-840-8250	
전남	전남 순천시 순천만길 922-15 (인월동 226-1)	061-749-4800	
전북	전북 익산시 고봉로 79 (마동 194-5)	063-0850- 0983	
충남	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학로 54 (대회리 1)	041-330-1666	
충북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정4길 45 (주성리 311-4)	043-249-1455	
제주	제주도 제주시 516로 2946 (아라일동 6-94)	064-752-9982	8:30~22:00 (연중무휴)
국립공원연구원 북부보전센터	강원도 인제군 북면 황태길 76-46 (용대리 450-21)	033-463-9120	
야생동물의료센터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화암사로 402-31 (황전리 41-2)	061-783-9585	9:00~18:00 (주말, 공휴일 휴무)
국립생태원	충남 서천군 마서면 금강로 1210 (덕암리 725)	041-950-5957	

법정보호종 사체 발견 시

법정보호종이란 멸종위기에 처해있거나 서식지 파괴 등 다양한 문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법으로 지정해 놓은 종입니다. 하지만 많은 법정보호종 조류가 유리 구조물에 충돌해 죽거나 다치고 있습니다. 조사 중 발견한 법정보호종 조류 사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조류 사체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유산(천연기념물) 담당 공무원이 국가유산청에 멸실 신고를 하도록 사체를 인계합니다. 지역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구조관리센터 담당자와 출동하기도 합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조류 사체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유역(지방)환경청의 안내에 따라 처리합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위탁 계약을 맺은 민간 업체 담당자가 출동해 사체를 수거해 가기도 합니다.

사체 인도 방법

사체를 인계할 때 지퍼백에 담아 밀봉하고, 발견 일시, 장소, 사고 원인 등 세부 정보를 기록한 메모를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합니다. 휴일에는 당직 근무자를 통해 사체와 메모가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될 수 있도록 합니다.

번거롭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법정보호종 사체를 발견한 즉시 신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시·도 보호 야생생물 지정 조류 사체 발견 시

시·도지사는 「야생생물법」 제26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그 수가 감소하는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준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야생생물을 그 지역 보호 야생생물로 지정하여 조례로 고시할 수 있습니다. 보호 야생생물을 지정·고시한 지역으로는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 보호 야생조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지역 콜센터(지역번호 +120)에 연락해 수거해 갈 것을 요청합니다. 추후 민원을 넣을 때 해당 지역 보호 야생조류 피해량을 언급하면 좋습니다.

조사 경험 나누기

지역 안에서 꾸준히 일어나는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조사자의 경험을 지역 사회에 널리 공유해야 합니다. 지역의 문제는 지역민의 관심이 모여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 일기 쓰기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자주 이용하는 소셜 미디어에 조사 경험을 기록합니다. 조사할 때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첨부하면 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편집할 수 있다면 유튜브나 릴스 등 플랫폼에 영상 콘텐츠를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조사 일기는 기억이 희미해지거나 감정이 무뎠어지기 전에 작성합니다. 조사 중 지역민과 나눈 대화, 민원에 대한 관리주체의 반응 등을 기록해 두면 좋습니다.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문제는 조사자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인스타그램 계정 살펴보기

생활권에 있는 인공구조물을 살펴보고 있다면 게시물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공식 계정을 태그합니다. 위치 태그를 하면 알고리즘을 통해 지역민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집니다. **초록(@kima_and_green)**과 **희복(@weglee.heebok)**은 거주 지역에서 발생한 충돌 피해 사례를 기록하며 지역민들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한 장소를 꾸준히 조사하고 있다면 게시물을 올릴 때마다 그 장소와 관련된 계정을 태그하거나 해시태그를 달아 해당 장소를 관리·이용하는 사람이 보도록 해야 합니다. 이화여대 **윈도우스트라이크모니터링팀(@windowstrike_in_ewha)**은 이화여자대학교 교내에서 발생한 충돌 피해 사례를 기록하며 학우(벳)와 교직원들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함께 조사하기

가족, 친구 등 주변인은 물론 조사 일기를 보고 관심을 보이는 지역민이 있다면 함께 조사합니다. 이때 그 사람의 거주지 인근에 있는 인공구조물을 살펴며 현장 경험을 나누면 좋습니다. 사진이나 영상, 글로 접했을 땐 나와 무관한 일처럼 느끼던 사람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자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 번의 경험으로 그 사람이 동료 조사자로 거듭날 수는 없습니다. 비록 누군가에게는 이 경험이 일회성에 그치더라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자신이 살펴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찰과 기록을 해 봐야겠다고 결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지역민이 나타나면 함께 조사하며, 혼자서도 조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제보, 민원 요청하기

충돌 피해 사례를 목격하면 네이처링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조사' 미션에 직접 게시하거나, 조사자에게 다이렉트 메시지(DM)로 제보해 달라는 게시물을 올립니다. 제보가 오면 제보자로부터 새 사진, 인공구조물 유형(건물 유리창, 방음벽, 유리 난간 등), 맹금류 스티커 부착 여부, 상세 주소 등 기초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에 따라 사체 처리나 구조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민원 넣기

총돌 피해를 조사하고 기록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민원을 넣는 일입니다.

조사자는 직접 조사한 장소는 물론 피해 기록이 있는 다른 장소에도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동물 총돌 피해방지 조치' 시행을 촉구하는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때 네이처링 '야생조류 유리창 총돌 조사' 미션에서 민원 장소에 기록된 피해 사례를 캡처해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은 해당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담당자 등 관리주체에 전화해 민원을 넣거나, 국민신문고 웹 또는 앱에 접속해 전자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민원 처리 과정과 답변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신문고를 추천합니다.

실제 민원 사례는 페이스북 '야생조류 유리창 총돌' 그룹 (<https://www.facebook.com/groups/445639272561545>)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등의 의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건축물, 방음벽 등 인공구조물을 설치·관리하는 경우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동물의 충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계기관은 해당 기관이 담당하는 인공구조물로부터 발생하는 야생동물의 충돌 피해를 파악하고,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의 피해방지 방안을 적용하는 등 법적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민간 건축주 등 국민의 의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이 말은 즉 공공기관 등이 아닌 민간 건축주, 소유주, 관리자 등도 자신이 설치·관리하는 인공구조물에 야생동물이 충돌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해당 시·도 의회의 역할

해당 시·도에서 「야생동물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면 조례를 근거로 저감사업 추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시·도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 지역 조례를 바탕으로 조례 제정·시행을 촉구하여야 합니다.

저감조치 방법

저감조치 방법은 환경부에서 2024년에 발간한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실태조사 및 피해방지 조치 세부 지침」의 내용을 따릅니다.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 방음벽, 유리 난간 등에 직접 저감조치를 할 계획이라면 무늬의 직경이 6mm 이상인 조류충돌 방지 테이프를 구입해 5×10 규칙(상하 간격 5cm, 좌우 간격 10cm 이하)에 맞게 직접 부착하거나, 시공업체에 의뢰합니다. 유리는 투명성과 반사성을 동시에 지니므로, 테이프는 반드시 외부에 부착합니다.

설계 중인 인공구조물이 있는 경우 불투명한 소재의 유리를 사용하거나, 투명한 소재를 쓰더라도 무늬, 불투명도 등을 활용하여 새가 유리를 장애물로 인식해 통과하려 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환경부에서 매년 「조류충돌 방지 테이프 지원사업」을 공모하니 건축물, 방음벽 등 인공구조물을 관리하는 민간 건축물 소유주, 점유주, 관리인 등은 사업에 신청해 테이프를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문의: 환경부 044-201-7252)

저감조치 캠페인 준비 및 진행 과정

대상지 선정 → 충돌 피해 규모 확인(중·개체 수) → 구조물 규모 확인 → 캠페인 일정 지정
→ 해당 지역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시설물 이용 허가 협조 요청 및 협의
→ 시·도 자원봉사센터에 협조 요청 → 캠페인 홍보 및 참여자 모집 → 해당 지방자치단체 도로교통과, 경찰 등 신호수 지원 요청(필요 시)
→ 캠페인 진행 → 후속 홍보(보도자료 배포 등) 진행

붙여서 쓰세요

[부록 1] 부상 개체 인도 카드

부상 개체 정보		
종명		개체 수
사고 장소		
상세 주소		
사고 원인	유리 구조물 충돌	
세부 내용		
신고자 정보		
성함		연락처
		-

[부록 1] 부상 개체 인도 카드

.....
 들어서 쓰세요

부상 개체 정보		
종명		개체 수
사고 장소		
상세 주소		
사고 원인	유리 구조물 충돌	
세부 내용		
신고자 정보		
성함		연락처
		- - -

[부록 1] 부상 개체 인도 카드

.....
 들어서 쓰세요

부상 개체 정보		
종명		개체 수
사고 장소		
상세 주소		
사고 원인	유리 구조물 충돌	
세부 내용		
신고자 정보		
성함		연락처
		- - -

[부록 2] 법정보호종 인도 카드

틀어서 쓰세요

법정보호종 개체 정보		
종명		개체 수
구분	<input type="checkbox"/>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input type="checkbox"/> I 급 / <input type="checkbox"/> II 급)
사고 장소		
상세 주소		
사고 원인	유리 구조물 충돌로 인한 사항	
세부 내용		
민원인 정보		
성함		연락처 - -

연락처	-	-	-
민원인 정보			
성명			
성내부세			
인원고사	유리 구조조도 총돌포 인함사항		
상세주소			
사고장소			
구분	<input type="checkbox"/> 천연기념물		
종업	개체 수		
법정보호종 개체 정보			
구분	<input type="checkbox"/> 멸종위기야생생물		
사과장소			
상세주소			
인원고사			
성내부세			
성명			

[부록 2] 법정보호종별 민원인 카드

들어서 보세요

-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야생조류 사체입니다. 「자연유산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멸실신고**가 이루어지도록 **문화유산(구 문화재)** 담당 주무관에게 인계 바랍니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야생조류 사체입니다.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44조의4에 따라 **폐사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담당 주무관**에게 인계 바랍니다.

연락처	-	-	-
민원인 정보			
성명	양내부세		
주민등록번호	유리구조동	총동로	인한사항
주소	상세	주소	
사고장소	구분	□ 천연기념물	
중요성	개체 수	□ 천연기념물	
법정보호종 개체 정보			
구분	□	천연기념물	
사고장소	□	천연기념물	
중요성	□	천연기념물	

[부록 2] 법정보호종별 민원인 카드

들어서 보세요

-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야생조류 사체입니다. 「자연유산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멸실신고가 이루어지도록 문화유산(구 문화재) 담당 주무관에게 인계 바랍니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야생조류 사체입니다.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44조의4에 따라 폐사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담당 주무관에게 인계 바랍니다.

건물 유리창·투명방음벽에 충돌해 담뱃꽂이를 담아서 밀봉함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본 현장에서 수습한 야생조류 시체를
일반폐기물로 배출하오니 개봉 및 처리에 유의바랍니다. ※

[부록 3] 사체 폐기물 처리용 안내문

들어서 주세요

-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야생조류 시체입니다. 「**자연유산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멸실신고**가 이루어지도록 **문화유산(구 문화재)** 담당 주무관에게 인계 바랍니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야생조류 시체입니다.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44조의4에 따라 폐사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담당 주무관**에게 인계 바랍니다.

건물 유리창·투명 방음벽에 충돌해 사망한 야생조류 사체를 담아 밀봉함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본 현장에서 수습한 야생조류 사체를
일반폐기물로 배출하오니 개봉 및 처리에 유의바랍니다. ※

건물 유리창·투명 방음벽에 충돌해 사망한 야생조류 사체를 담아 밀봉함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본 현장에서 수습한 야생조류 사체를
일반폐기물로 배출하오니 개봉 및 처리에 유의바랍니다. ※

[부록 4] 비상연락망

시·도	시군구	부서	연락처	비고
광주 062	동구	문화관광과	608-2404	천연 기념물
	서구	문화예술과	360-7026	
	남구	문화관광과	607-2333	
	북구	문화예술과	410-6619	
	광산구	관광육성과	960-3827	
전남 061	강진군	국가유산팀	430-3362	
	구례군	국가유산팀	780-2432	
	나주시	문화예술과	339-2537	
	무안군	문화예술과	450-4094	
	보성군	문화관광과	850-5242	
	화순군	문화예술과	379-3176	
경남 055	하동군	문화체육과	880-2368	

